

# 선교의 세계관적 패러다임을 바꾸다

한국은 세계 선교 역사에 있어 아주 특별한 나라다. 선교의 대상이었고, 기독교가 전파된 지 1세기 만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으며 지금은 오히려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나라이다. 한국의 선교역사가 그랬듯, 한국은 여러 나라에 학교를, 교회를, 병원을 세운다. 그중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선교에 도전한 한 선교사를 소개한다. 바로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네팔에서 기독교 학교인 '언약학교'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 진태훈 선교사이다. 월드뷰에서 그를 만났다.

인터뷰어 신효영

**신효영(이하 W)** 웨슬리 선생님이 꼭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세계관을 선교지에 적용하는 꼭 만나봐야 할 분이라며 월드뷰 독자에게 꼭 소개해야 한다 강조하셨어요. (웃음)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진태훈 선교사(이하 진)** 과찬이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웃음) 제가 겪은 어려움들에 대해 나누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는 선교지에서 부딪히는 이슈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실제로 학교를 운영하며 부딪히는 이슈들은 '사람이 먼저냐, 일이 먼저냐' 혹은 '힘을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미리 배웠으면 어려움이 덜했을 텐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교지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심지어 직장 생활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엄연히 이곳도 직장인데

말단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바로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당황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제가 배운 게 없고 틀이 없었던 것이 선교지에서 최대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거든요.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내가 아는 것,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먼저는 듣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네팔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 3시간 정도를 합니다. 먼저 1~2시간 정도를 쓸데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도 결론이 안 난 채로 끝나요. 그래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도해서 결정을 할 경우, 주도하는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점에 이를 때까지







내, 젊은 사람 둘이 겁도 없이 와서 이사장이 되었으니 낙하산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이전에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기 좀 어려워했죠. 게다가 저와 함께 일해야 하는 현지인 교장 선생님은 저와 성격이 완전 반대였어요. 저는 약간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 반면에, 교장 선생님은 꼼꼼하고 안전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딪치는 경우가 생겼지요. 또, 새로운 이사장이 교장을 바꾸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려서 사이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

야기를 주일 예배 시간에 듣게 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요나단과 같은 역할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후에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서로 신뢰하며 같이 일을 해 나가자고 말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제서야 교장 선생님이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권한과 재정관리를 교장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이후 학교 직원들 모두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습니다.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하나하나 부딪히며 배웠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매일 예배를 드려요. 우리 학교 전통이죠. 그래서 저는 하루에 설교를 두 편씩 했어요. 하루에 설교 두 편 6개월만 하면 언어가 자연스럽게 늘어요. 결국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두려움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매일 하루에 두 편씩 설교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이 사람들이 알아듣고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지죠. 더군다나 네 팔 사람들의 성정이 참 특별해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센스로 다 알아듣죠. 제가 말을 잘 못해도 엄청난 칭찬과 격려를 해 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말을 잘하고 있나 보다.' 착각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언어가 늘더라고요.

**(W) 언약학교의 또 다른 독특성은 무엇일까요? 학교 운영에 독특성이 있다 들었습니다.**

**(진)** 네팔에는 기독교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우리 학교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6년을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는 가운데 발견한 것이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선생님을 위한 학교를 만들자였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의 특징은 좋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에 있죠. 제3세계에서 학생

들을 위한 학교는 선생님을 소모품처럼 쓸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주목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제자는 스승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선생을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런 경우에 보통 선생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열심히 전수해요. '어떻게 잘 가르칠까? 어떻게 학생들이 잘 이해하게 만들까?'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찾아가는 가운데 선생님을 위한 학교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선생님을 뽑으려면 똑똑한 사람을 뽑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선생님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주기 위해 탈바꿈을 해요. 그래서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이 바뀌죠.

**(W)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 말은 쉽지만 적용이 어려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신지요?**

**(진)** 저희 학교는 아이패드로도 교육합니다. 네팔에서는 거의 최초입니다. 학교에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만든 건 아녜요. 이러한 교육방법을 도입한 이유는 간단해요. 유치원 선생님 중에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어 발음이 좋지 않은 사람, 가르침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나 많이 고민했어요. 제3세계에서 선생님이란 직업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에 속합니다. 월급도 많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생들이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학원 선생님과 비슷한 위치인 거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학교 선생님 하면 대부분 등록금을 벌고, 잠시 대학교를 졸업할 동안만 몸을 담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생

각하다가 나온 것이 아이패드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클릭만 하면 좀 더 정확한 발음을 들려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자르기보다는 못 하는 영역을 전자기기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저도 유치원부터 10학년까지 다 가르치며 선생님들이 부딪히는 이슈에 대해 직접 경험해보고 교육학을 통해 배운 틀을 적용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우리학교에서 그렇게 7년 정도 함께 있으면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물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7년이 지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 학교가 가진 가치에 동의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를 통해 운영하는 사람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문제를 얼마만큼 타협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지 제 자신에 대한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이런 전자기기와 읽기 프로그램들을 네팔 시골 산간지방에 있는 학교들을 돕는 도구로도 사용하려 합니다. 시골 산간지방에는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네팔 정부와 NGO단체들은 시골 산간지방에 있는 학교에 선생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죠. 늦어도 내년에는 한번 실험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의 강의를 동영상으로 찍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골 산간지방에 노트북 한 대, 스피커 하나, USB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마을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W) 그래서 이 학교의 두 가지 미션이 '교사 지원'과 '네팔학교 섬기기'군요. 또 다른 독특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진)** 먼저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더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창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실



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제3세계 교실은 보통 학생들의 자리가 일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둥글게 둘러앉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학생들의 자리가 열악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렬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선생님이 소리를 질러야 하고, 말 안 듣는 아이를 때려야만 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읽기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네팔에 적용해서 학교 커리큘럼을 고쳤어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대화할 때, 학생들의 창의력이 맞출에 묶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인도나 네팔에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얘기해보세요.' 하면 열 명 중 아홉 명은 대부분 '장미'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교과서에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일반상식 (general knowledge)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시험

을 보니까 애들이 그 교과서의 내용을 그냥 무조건 외워 버리죠. 그래서 집은 네모 위에 세모밖에 못 그려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스토리만 가지고 삽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들은 책을 절대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무턱대고 도서관을 지어 주는데, 그 사람들은 현지 사람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학교가 끝나면 그들은 바로 집에 옵니다. 놀고 나면 자신의 옷들을 손으로 빨아요. 또한 학교 숙제가 꽤나 많은 편이기 때문에, 숙제를 대충 끄적입니다. 그러고는 밥을 먹죠. 네팔에서는 열 시가 되면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저녁엔 불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모든 식구가 한 방에 살기 때문에 등불 밑에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은 책은 빌려오되 읽지는 않습니다. 결국 도서관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실용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



완해 주기 위해 학교에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2시간 썩 시간을 배정해 놓았어요. 일주일에 한 권은 최소한 학교에서 읽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교의 커리큘럼 구조를 변형시키죠.

세 번째로,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작은 것으로도 전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학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눠 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선생님들의 수업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거였어요.

제3세계에서 학교를 운영하다 보면 3가지 제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선생이 되고 싶어서 학교에 온 사람은 거의 없다. 두 번째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 번째는 선생이란 직업은 잠시 거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학교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을 꾸려 가는 것이죠. 때문에

제3세계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생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게끔 돕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독교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되고요.

운영자는 선생님을 위한 학교를 운영하되,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주제를 깊이 고민해요.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요. 선생님들이 골치 아픈 일이지만, 신기한 건 6~7년 함께 있으면 서로에게 물어봐요. 저는 이것이 진정한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음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근데 그것은 한순간의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녜요. 제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바꿔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배움을 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정말 달라진 건 다양한 스토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예요. 사실 제3세계 아이들은 새로운 자극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가끔



개천에서 용이 날 수도 있지만 저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지요. 새로운 자극이 없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꿈을 품으라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버는 것 말고는 없거든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견고하고 단조로운 것은 한 가지 스토리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르치려면 제가 그 세계관을 가지고 먼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의 이슈, 힘의 이슈 그리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정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상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에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사랑하는 만큼, 살아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W)** 상당히 공감됩니다. 일터에서는 효율성과 더 많은 자원을 추구하지 사실 직원의 교육에 그렇게까지 애쓰기는 힘들거든요.(웃음) 페이스북도 적극 활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진)** 페이스북을 만들어 줬던 근본적인 이유는 학부모들에게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해 주고 싶어서였어요. 선생님들이 본인의 수업 사진을 찍어서 올려요.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들 페이스북을 써 본 적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럼 학부모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며 선생님들과 소통을 하죠. 페이스북의 또 다른 긍정적 영향은, 선생님들이 자신의 수업을 올리면서 서로의 수업 방식과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보통 선생님들은 본인이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로의 수업을 보고 '아. 이렇게도 가르칠 수 있구나?', '어? 너는 학교에서 수학 가르칠 때 이거 쓰니?' 하며 서로 물어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또 한 가지 얻은 건 운영자로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뭐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웃음)

**(W)** 선교사님의 방식이 비단 네팔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사는 이곳의 세계관을 다시 한 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